사업 의의

이 사업의 결과는 하노이 시 무형유산의 가치 보존과 증진을 위한 관리 측면에서 이론으로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사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지원과 권고를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는 목록화 사업 및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하노이 시는 물론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 수립에서 양으로나 질로 우수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무형유산보호 과제로서 도제제도(Ustod-Shogird)의 보호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개요

도제제도(ustod-shogird)는 수세기에 걸쳐 무형유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 온 교육제도다. 이 제도의 부활은 동양의 다수 국가에서 연행되던 다양한 수공예 기술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제제도의 기능 공학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 연구는 예술 공예의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현대 공학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의 자급자족성, 생존력은 언제나 도제제도의 특징이었다. 도제제도는 다양한 예술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그 결과 중세시대 도제제도 내에서 문서 작성의 전통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예술 창작을 위한 구체화된 규칙(공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칙을 쉽게 간직하기 위해 시의 형태로 전했고, 제자들은 규칙을 쉽게 기억하고 보관하기 위해 노래로 불렀다. 오늘날 도제제도 원칙의 부활은 현실을 볼 때 타당성이 꽤 높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은 언제나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모두를 한뜻으로 단결시켜서 선조와 후손, 관련 기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우리에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형유산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무형유산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 문화의 기억을 보존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본질과 모습을 지켜 나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문화유산 고유의 다채로운 특징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 전통을 발전시키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타지키스탄 사회의 제반 조건은 과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신생활 측면에서 뚜렷한 다원화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와 법체계는 국제 민주주의 기준에 따라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정치·경제·문화, 다양한 이념과 정신의 전통 및 조류 속에서 더욱 독립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 능력 역시 필요하다.

타지키스탄의 역사·문화 의식은 20세기에 엄청난 굴곡(deformation)을 겪었다. 이 굴곡은 물질·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세대 간 관계, 삶의 방식, 생활 윤리 규범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후기산업주의(일명 탈산업주의) 문명이 문화유산의 높은 잠재성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중요 자원의 하나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소실된 문화유산은 대체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 사라진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라도 당대와 후대 삶의 모든 영역에 필연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반에 걸쳐 정신의 궁핍과 역사 기억의 단절 및 사회의 피폐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라진 문화유산은 현대 문화의 발전 및 새로운 작품 생산 등 어떤 것으로도 상쇄될 수 없다. 문화유산의 축적과 보전이 바로 문명 발전의 근간인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최근 동향을 보면 문화유산을 고유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과 현대 삶의 테두리에 적극 포함시키려는 소망이 혼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역사는 과거의 보존과 문화 가치의 축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로트만(Y. M. Lotman) 교수는 "문화는 기억이다. 문화는 언제나 역사와 얽혀 있고 도덕·지식·정신 차원에서 인간의 삶과 사회, 인류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문화를 말할 때는 이 문화가 거쳐 온 수많은 방식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천년의 역사에 이르게 되고 역사 시대 구분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즉 전 인류의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각 민족이 보유한 풍부한 무형유산은 현대 사회에서 그 정신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내용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타지키스탄은 문화정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문화유산의 전수를 가능케 한 '우스토드 쇼기르드'(ustod–shogird: 스승과 제자)라는 도제식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승 방식으로, 세대에 걸친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예 전통의 부흥을 위해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지키스탄의 전통 도제제도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통해 공예 기술 전승 과정에서 현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도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자족을 통한 생활력 강화다. 도제제도를 통해 전문 예술가들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왔다.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연구문서 작성 기술이 부상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예술의 기반을 이루는 규칙이나 기술이 포함되었다. 규칙을 기억하기 위해 도제들은 노래로 만들어 반복해서 암송하기도 했다.

도제제도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학이며, 국가·공화국·지역 수준에서 실현된다. 도제제도는 일종의 교육 기능 공학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으로 특정 문화 영역에서 구체화한 목표를 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제제도에는 이론을 실행에 옮기는 실질적인 이행 수단이 기본으로 상시 마련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도제제도를 분석하면 도제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공학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도제제도에서의 훈련공학은 교수법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교육 과정을 토대로 실현되고, 전통 훈련 방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신뢰성과 결과 보장성을 보인다. 도제제도에서 훈련공학은 특정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예정된 결과를 산출하는 논리로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제제도에는 교육 과정과 성과에 사용되는 형식 및 방법으로 구성된 공학이 작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계획된 결과를 달성한다.

현대 타지키스탄 사회에 적용된 도제제도의 원리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현대 교육학의 한 요소로서 효력을 입증했다.

도제제도의 훈련공학은 개념상 완벽한 시스템으로 중요한 개념이자 원칙이고 방법 및 지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재생산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훈련의 질을 보장한다.

스승과 견습생으로 구성된 도제제도는 다양한 전통 문화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화된 원리다. 이 도제제도는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우스터드-쇼기르드), 키르기스스탄(우스타트-샤키르트), 카자흐스탄(우스타스-샤키르트), 일본(이에모토제도), 인도(구루-시슈야) 등지에 공존한다. 그 밖의 비유럽 문화권에도 구전으로 전통을 전수하는 유사 제도가 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음악과 창조성 예술 및 공예 등 모든 유형의 문화를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유형의 창작 예술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습득 제도는 첫 단계 훈련, 그다음 전문 기술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서 도제제도는 이념 및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도제제도의 시작은 고대 이란 문명과 관련이 있다. "고대 이란인은 아리안 문명의 계승자로서 후세에 정신문화를 물려주기 위한 전승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의 지식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도제제도는 이란 민족의 고대 예술 맥락에서 종교 지식의 전수를 위해 탄생했고, 처음으로 사회 기능을 수행했다. 종교 텍스트는 전승된 데이터의 일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글과 음악 이외에 다른 유형의 창작 예술도 포함되었다.

최초의 임무는 선조들의 경험을 간직하고서 후세에 전승하며, 기억 속에 보관한 정보를 창의로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발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제제도는 연구문서 작성의 전통 형성에 일조했다. 타지키스탄 음악 문화에서 이러한 문서는 9~15세기 '공연 규칙'과 16~20세기 '교사의 작문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제제도의 특징을 연구하면 이 교육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 예술 전통의 보전과 지속 발전 지향
- 학교라는 환경에 기반을 두고 기능
- 아리안 문명에 기원을 두고 발생했으며, 이후 각 시대의 정치·종교·이념 제도와는 무관
- 일종의 훈련 체계
- 실질의 훈련 속성에 따라 가르침을 받으며, 이론 발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문서 작성 전통을 더욱 명백하게 발전시키며, 이를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용
- 예술 공예 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
- 구전 전승 형태 고수
- 스승과 학생의 '대화' 형식으로 직무 수행
- 특히 스승은 명예로운 지위를 지닌다고 정의

동양 다수 국가의 문화 역사 속에서 도제방식(ustod-shogrid)은 사실상 전문성이 고도화된 예술 문화의 수호자이자 전달자였다. 도제제도는 역사상 선조의 풍부한 경험을 보전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1세기 초인 오늘날에도 전통 예술의 발전 증진과 동양 특유의 예술 사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과정을 회고해 보니 이 협약의 채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